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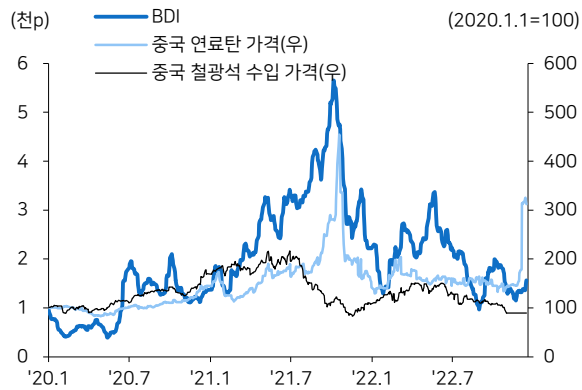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12. 20 (화)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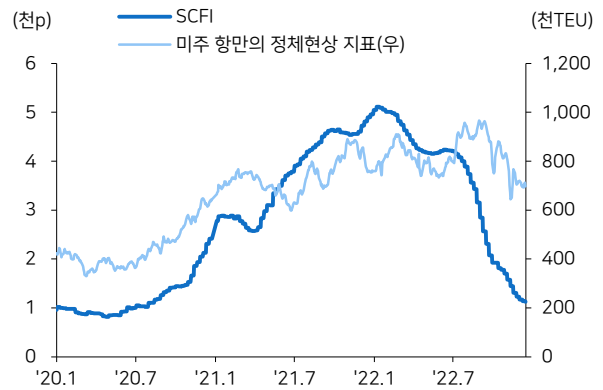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48.0p(-1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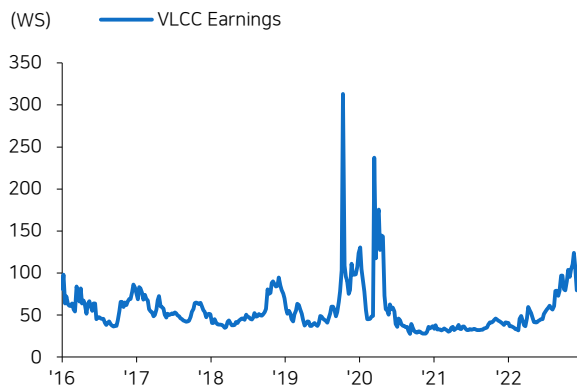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23.3p(-14.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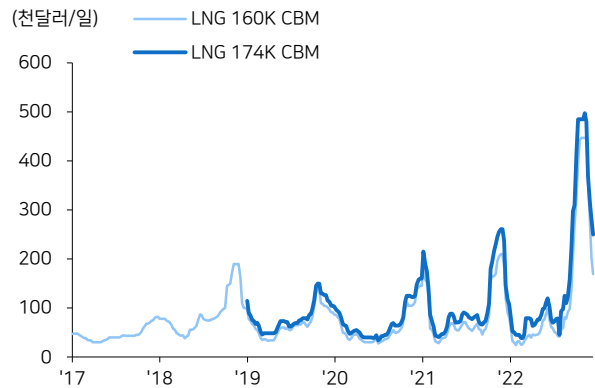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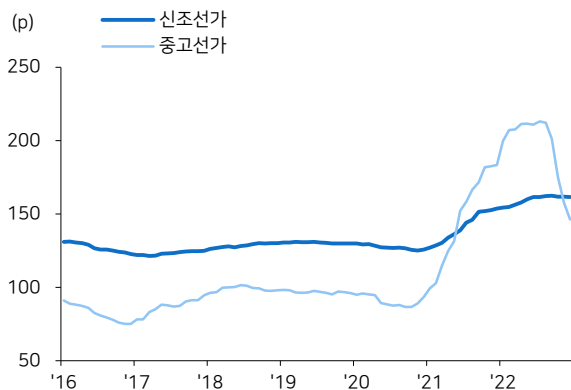
82.7p(+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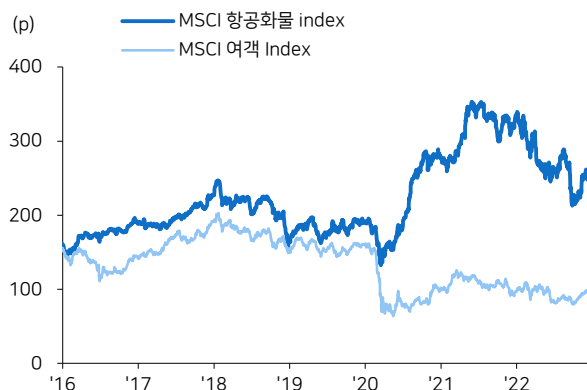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169.3p(-32.0p WoW)  
250.0p(-3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6p(+0.0p WoW)  
146.1p(-11.8p WoW)

항공시장 지표

246.3p(-1.9p DoD)  
95.9p(-0.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New German FSRUs to replace more than half country's Russian pipeline gas

독일의 신규 FSRU 기반 LNG터미널이 연간 총 300억CBM 추가 수입량을 제공할 것으로 보도됨. 이는 2021년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수입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설명함. 독일 정부는 FSRU 최대 5척을 확보했다고 알려짐. 현재 2척이 가동되었고, 세 번째 FSRU는 2023년 1월 15일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 정부-지자체, 거제 조선업 구인난 해소 위해 200억 규모 특화사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제시를 방문해 200억원규모 '20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거제시를 고용위 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뉴스1)

## US to repurchase crude for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미국이 유가하락에 따라 전략적 비축유를 다시 매입할 것으로 보도됨. 미국 정부는 지난 12개월간 팬데믹발 수요 증가 및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급으로 많은 양의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음. 당시 배럴당 96달러에 판매했는데, 현재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함. 우선 원유 약 300만배럴을 매입할 계획으로 알려짐. 미국 정부는 12월 28일까지 입찰을 받고, 1월 13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짐. (Upstream)

## Eneti locks first WTIV newbuilding into \$75m contract for 2025 work

Eneti가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WTIV 2척 중 1척 초기 계약을 완료했다고 보도됨. 해당 WTIV는 2024년 4분기 인도될 예정임. 계약한 프로젝트 순이익은 6,000~7,300만유로(6,400만달러) 수준으로 226~276일간 대선할 것으로 언급됨. 한편, 최근 WTIV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으며, 최대 2029년 수요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 Shadow fleet and strong rates keeping mainstream owners away from Russian crude, BRS says

러시아산 원유가 G7의 60달러 상한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주요 탱커 선사들은 교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됨.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45~50달러에 거래되어 보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거래 10건 중 9건은 그림자 선대가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짐. BRS는 주요 선사들이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 수송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한편, BRS는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 초과공급으로 상반기에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겠으나, 하반기에는 60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함. (Tradewinds)

## HMM, 일본 선사와 손잡고 중량화물운송서비스 강화

HMM이 일본 NYK벌크·프로젝트캐리어(NBP)와 손잡고 중량화물 운송서비스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중량화물 운송은 원전이나 플랜트 등 해외 건설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 기계설비와 같은 중량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서비스임. HMM은 2007년부터 중량화물 운송을 시작해 현재 총 6척의 중량화물선을 운영, NBP는 총 40척의 다목적선과 중량화물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짐. HMM은 이번 전략적 제휴로 현재 격주 수준에서 매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짐. (코리아슈핑가제트)